



主題：醫療人和患者와의 關係

제19차 세미나 초록

(演) (題)

醫療技士와 患者와의 關係

金 傑

〈서울 聖母病院 放射線科〉
主任技士

Relation between
Medical Technician
and Patient

Keol Kim

Department of Radiology
St. Mary's Hospital

저에게 위촉된 「醫療技士와 患者와의 關係」라는 題目을 가지고, 制限된 時間內에 우둔한 經驗과 느낌을 가지고 여러先生님들 앞에 피력하게 된것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患者와 醫療技士라하면 「타이틀」치고는 너무나 廣範圍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小生이 느낀바 切實히 要求되는 點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醫療技士의 種別로 말씀드리면 잘아실줄 압니다. 마는 病理技士 放射線技士 치과技士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作業치료사가 있습니다. 全國에 從事者가 都合約 5,000명이 있습니다.

이 五千명이라는 醫療技士는 全國 各 病院에서 患者診療행위에는 없어서는 아니될 莫重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病院의 絕對的인 要員이고, 患者診療행위에 影響力을 끼칠수 있는 醫療技士가 한 두 사람도 아니고, 數十名도 아닌 數千名이 될때는 小生으로 서 느낀바 먼저 가장 重要한 것이 「患者와 醫療技士」에 對해서 論하기 전에 醫療技士의 資質이 문제인줄 압니다. 小生이 보는 關點에서 醫療技士는 첫째, 용모가 端正하고 圓滿한 性格의 所有者라야 되겠습니다.

둘째 醫療技士는 體係있는 專問知識과 숙달된 技術이 必히 갖추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셋째 醫療技士는 對人關係에 있어서 正確하고, 責任感이 있고 겸손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相對를 尊敬할 줄 아는 技士라야 되겠습니다.

넷째 共同生活속에서 系統과 질서를 重히 여기고 「리더십」이 강한 醫療技士라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말은바 專門分野에서 意慾的인 創造性과 進取的인 改善點을 恒常追求해 나가는 醫療技士像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醫療技士가 患者에 對한 마음가짐과 姿勢는 어떻게 取해야 될 것인가 生覺해보았습니다. 첫째로 患者는 絶對的인 우리 고객이므로 어디까지나 親切과 誠意와 說得으로 말은 바 所任을 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患者는 어디까지나 弱者이면서, 强者입니다. 故로 사랑과 忍耐로 소기의 目的을 完遂해 나가는 醫療技士의 자세가 必要한 것입니다. 그러면 醫療技士와 患者間의 問題點들을 大局의 見地에서 몇가지 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醫療技士들이 制限된 技術안에서 患者를 對할때 너무나 機械的이고 習慣的인 行위를 함으로써 患者에게 주는 「이미지」가 大體的으로 좋지 못하게 되는 것은 否認하지 못하는 事實입니다. 이러한 點에 있어서 患者들에게 壓迫感을 주고 仁術에 어긋나는 일들을 없애기 爲해서는 먼저 病院經營者側에서 醫療技士들에게 과중한 業務量을 부담치 않도록 配慮의 對策이 要求되는 바이며 따라서 人力의 適切한 配置나 施設의 充分한 뒷받침이 必要하다고 思料되는 바입니다.

둘째로, 醫療技士들이 仁術의 本據地인 病院의 한 要員으로서 勤務를 할 때 접촉하는 患者들마다 人格的인 品位를 나타내며 安定된 信賴感과 心身의 慰安을 주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如意치 않게 運營되어 감을 告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醫療技士들에게 品位있는 人格과 患者에게 깊은 信賴感을 안겨주는 資質이 要求된다면 먼저 病院內에서 職員相互間에 人格的으로 尊重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患者側에서 불매에 모두가 아름다운 마음씨의 集團이라고 認定될 때 비로소 醫療技士 各者의 몸에서도 香氣로운 人格이 造成되어 患者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職員끼리 蔑視하고 不信하고, 시기하고, 사랑이 없을 때는 여기에 찾아오는 患者에게 要求되는 信任과 信賴와 慰安을 充分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至大하게 要求가 되는 患者들도 많이 있기에 問題를 삼아 보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問題點 몇가지를 더 첨부하겠습니다.

첫째로, 醫師와 醫療技士가 患者를 두고 共同作業을 할때 初年生醫師의 미숙한 처리와 決定的인 失手를 目擊하고, 醫療技士로서 平安한 마음으로 建議를 할수 있고 醫師로서도 깨끗이 받아들일수 있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缺如되어 있는 것을 無視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患者를 取扱中 擔當技士가 患者의 애로와 心身의 苦痛을 實感하고, 他分野에 協助를 求할때 輕視와 默殺을 當하는 境遇 醫療技士로서 회의와 意慾 상실증에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問題들을 위에 論한바 職員彼此間에 人格的으로 尊重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질때 自然히 해소가 될 줄입니다.

셋째로 醫療技士들이 宗教病院에서 勤務할 때 自己가 맡은 科學的인 任務는 遂行하지 마는 靈的인 面으로서는 缺如되어 있는 것을 否認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肉身在 弱해져 있는 허다한 重患者들에게 必要로 되는 것은 科學的인 任務도 重要하지만 영혼의 慰安도 시급한 問題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信仰의 문제는 各者 個人의 문제이지만 우리 醫療技士에게는 必要한 문제인 줄 압니다. 理想論에 속할지 모르지만 患者에 따라서는 重要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 끝으로 患者中心의 醫療技士를 確保하기 爲해서는 病院經營主에게 要求되는 點을 몇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情實人事가 없는 資質本位의 要員選擇이 必要하며 確保된 要員은 어디까지나 充分한 生計保障이 있을 때만이 自己의 資質을 百%發揮할 줄로 思料됩니다.

둘째, 醫療技士가 所信껏 奉仕할 수 있도록 可能한 限 施設充當과 환경 造成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셋째 醫療技士의 資質上 能力이 認定될때는 더욱 새로운 技術習得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資格이 없고, 우둔한 經驗에서 우러나온 小生의 짧은 所見을 全國에서 모이신여러 尊敬하는 先生님들앞에서 피력하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며 잘못된 理論이 있더라도 너그러히 理解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